

“류현진은 누구? 작년만큼 하면 토론토는 황홀할 것”

美스포츠 전문 디에슬레틱, 류현진 관련 장문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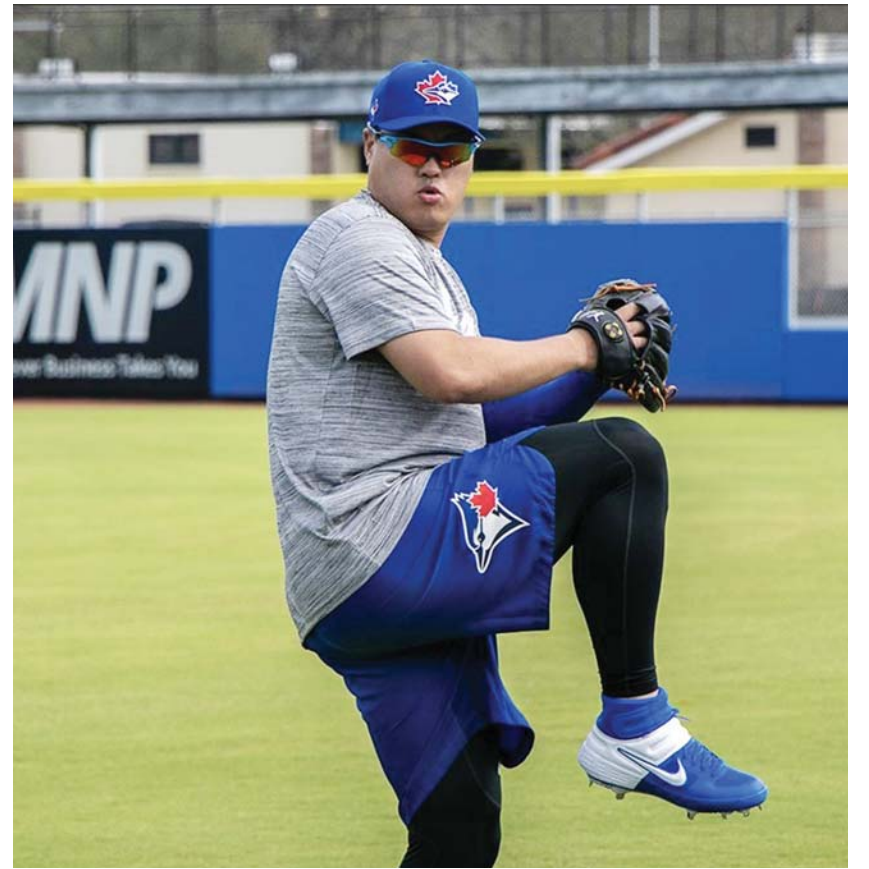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해왔던대로 해나갈 것”

“류현진이 지난해만큼 활약한다면 토론토는 황홀할 것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에슬레틱이 게재한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 관련 칼럼에 포함된 문장이다. 디에슬레틱은 12일(한국시간) ‘류현진은 누구인가? 토론토의 새로운 에이스의 믿음에 이어 된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류현진의 다저스 시절 에피소드부터 현재 소속팀 토론토의 기대치가 실린 장문의 칼럼이다. 칼럼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프런트로 변신한 A.J. 엘리스의 기억으로 시작한다. 엘리스는 류현진이 다저스 입단 초기 호흡을 맞췄던 포수다. 엘리스는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던 류현진의 스프링캠프 첫 불펜피칭을 떠올렸다. 류현진은 다른 신인들처럼 피칭에 온 힘을 쏟지 않았다. 엘리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며 “류현진은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팀이 한 시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통의 신인 투수들은 첫 불펜 피칭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 주려 노력하지만, 류현진은 묵묵히 자신의 스키줄대로 컨디션만을 끌어 올렸다는 뜻이다. 보통의 신인 투수들은 첫 불펜 피칭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 주려 노력하지만, 류현진은 묵묵히 자신의 스키줄대로 컨디션만을 끌어 올렸다는 뜻이다. 류현진을 영입할 당시 다저스 단장이던 네드 콜레타는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기억

했다. 22세에 불과했던 류현진이 5만5000명이 운집한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결승전에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고 디에슬레틱은 설명했다. 콜레타 전 단장은 “매우 큰 경기였다. 그러나 류현진은 국가를 대표하면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투구를 펼쳐 우리를 흥高采롭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류현진을 영입한 이유이기도 했다. 디에슬레틱은 류현진이 다저스 입단 첫 해 스프링캠프에서 달리기 끝까지 했다. 이 에피소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력질주를 했던 클레이튼 커쇼와 대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당시를 떠올려 A.J. 엘리스는 “류현진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는 그 프로페셔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류현진은 시속 62마일의 커브를 던지고, 그 다음 공으로 75마일짜리 커브를 던질 수 있었다. 커쇼조차 부러워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체는 클럽하우스에서 당시 대유행하던 사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친화력이 좋았던 점, 등판일 사이에 불펜피칭을 하지 않는 특이한 컨디션 조절법

등도 언급했다. 콜레타 전 단장은 류현진을 가리켜 “친구가 되기 쉬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14승을 따낸 류현진은 2015년부터 부상에 시달렸다. 디에슬레틱은 재활 기간 류현진이 커쇼의 투구를 관찰한 사실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허니컷 코치는 “류현진은 최고의 투구를 지켜보며 배웠고, 자신의 투구에 접목도 했다. 자신과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개의치 않았다”며 “류현진의 적응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디에슬레틱은 다저스에서 보낸 이같은 시간들을 토론토도 존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트 워커 토론토 투수코치는 “류현진은 류현진만의 방식으로 시즌을 치러 성공해왔다”며 “그와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에슬레틱은 “류현진이 지난해처럼 던져준다면 토론토는 황홀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상 이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토론토 입장에서 류현진이 200여닝을 던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150여닝이면 만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토론토의 젊은 투수들이



결에서 류현진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류현진도 다른 선수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 ‘나이가 어린 선수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류현진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허니컷 코치의 한마디로 마무리했다. 허니컷 코치는 “류현진은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고 있다. 류현진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첫 5500점’ 양효진 “기록 전혀 몰랐다, 1만점은 힘들지 않을까요”

女프로배구 최초...남녀부 통틀어 박철우 이어 두번째



여자 프로배구 최초로 5500득점(5501점)을 돌파한 현대건설의 센터 양효진(31)은 대기록을 달성 뒤에도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기록 달성 이 주는 의미에 대해 묻자 “전혀 몰랐다. 첫 번째인가요?”라고 묻은 뒤 “경기 중에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왜 그런지 몰랐다. 내 시야가 좁은 것 같다”고 웃었다. 현대건설은 11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20 도드람 V리그 5라운드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3-0(25-22, 25-17, 25-20)으로 이겼다. 이날 팀의 에이스인 양효진은 블로킹 2개를 포함해 11득점으로 승리를 견인했다. 경기 전까지 5490점을 올렸던 양효진은 11점을 추가, 여자부 최초로 5500득점(5501점) 고지를 밟았다. 통산 득점 2위는 같은 팀의 황연주(5440점)다. 남녀부 통틀어서는 삼성화재 박철우(5584점)에 이어 두 번째다. 양효진은 3세트 22-19에서 특유의 중앙 오픈 스파이크를 터트리며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기록에 대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코트에서 많

이 뛰었구나 생각한다. 남은 배구 생활에서도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도 양효진의 존재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이 감독은 “현대건설 하면 이제 양효진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면서 “팀의 레전드로 입지를 굳혀가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배구에서 팀의 주 공격수는 주로 날개 포지션 선수들이 맡는다. 하지만 양효진은 V리그 여자부 센터 중 유일무이하게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올 시즌 현대건설에서도 가장 많은 368점의 득점을 올렸다. V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디우프(KGC인삼공사, 722점), 러츠(GS칼텍스, 550점), 어나이(IBK기업은행, 483점), 박정아(도로공사, 417점)에 이어 5위다. 국내 선수 중에선 두 번째다. 매 경기 많은 점수를 뽑아내는 그는 이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냈다. 양효진은 “아마 은퇴하고 난

뒤에도, 득점을 많이 한 센터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고 미소 지었다. 그는 “데뷔 시즌 때 흥성진 감독님께서 공격을 많이 시켜주시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이후 감독님들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로는 1경기 개인 최다인 40득점을 올린 게임을 뽑았다. 2013년 1월26일 도로공사전에서 40득점을 올린 것이 자신의 최고 기록이다. 그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다. 어릴 땐 코트에서 점프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상대 공격도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어릴 때 확실히 꿈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프로 13년 차인 양효진은 통산 1만 득점 도전에 대해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아직 언제까지 해야겠다고 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13년을 했는데, 앞으로 13년을 더 하진 않을 것 같다. 다른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웃었다.



‘SEA게임 퇴장’ 박항서 베트남 감독 친선경기 4경기 정지·벌금 5000달러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아(SEA)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친선경기 4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0달러(약 590만원)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베트남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감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SEA게임은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AFC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기에 공식 경기 출장 정지는 피하게 됐다. 베트남은 다음 달 26일 이라크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 박 감독은 벤치에 앉을 수 없다. 하지만 이후 다음 달 31일 열린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말레이시아 원정 경기에서는 팀을 지휘한다. 앞서 박 감독은 지난해 12월10일 열린 SEA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3-0으로 앞선 후반 32분 주심에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후 박 감독은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고 팀은 실점 없이 3-0으로 승리, 60년 만의 SEA게임 우승 트로피를 따냈다. 경기 후 박 감독은 “자제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레드카드를 받는 것보다 우승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후원사 규정’에 발목...정현, 데이비스컵 국가대표 제외 이유

선수 “뛰고 싶다” vs 협회는 “후원사 로고 가려야”

정현(24·한국체대)의 ‘테니스 국가대표항전’ 데이비스컵 출전이 불발됐다. 대한테니스협회 후원사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대한테니스협회(KTA)는 12일 ‘2020년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데이비스컵)’ 예선 이탈리아 원정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남지성(세종시청), 이덕희(서울시청), 정윤성(의정부시청), 송민규(KDB산업은행), 정홍(현대해상) 등 총 5명이 최종 명단에 올랐다. 정현의 형 정홍(27)이 포함된 가운데 한국 남자 단식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정현과 권순우(23·당진시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권순우는 남자 프로 테니스(ATP) 투어에 집중하기 위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KTA 측은 “권순우 선수의 경우 4월초까지 ATP 투어에 참가하는데, 일정 중간에 데이비스컵까지 출전할 경우 컨디션 조절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 방어의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의 불참 이유는 다소 복잡하다. 후원사 규정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KTA 규정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전에 출전할 경우 후원사의 의류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고 나온다. 한국 테니스 국가대표팀의 후원사는 아디다스다.

그러나 정현은 개인 후원사를 두고 있다. 의류는 라코스테, 신발은 나이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특히 신발은 잦은 물집 부상으로 인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있다. KTA는 “개인 후원사 제품을 착용해도 로고를 가리면 출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현 선수 측은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KTA 규정에는 예외 조항도 있다. ATP 세계랭킹 50위 이내의 선수의 경우 개인 후원사의 의류와 신발을 착용하고 국제대회에 나가도 된다는 조항이다. 정현은 현재 세계랭킹이 139위까지 밀린 상태다. 당연히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현의 매니지먼트사 IMG의 김종호 사서는 “정현 선수는 참가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협회 규정 때문에 나갈 수 없게 됐다”며 “아직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몸상태다”고 말했다.

박희영, LPGA 2주 연속 우승 도전

호주여자오픈 개막 열 에들레이드 골프클럽(파27·6648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9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끝난 ISPS 한다 빅 오픈에서 6년 7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박희영을 비롯해 한국 골퍼들이 대거 출격한다. 지난주 빅 오픈에 이어 잇달아 출전하는 세계랭킹 9위 이정은(24·대방건설), 17위 박인비, 18위 유소연(30·메디힐) 등은 랭킹 포인트 적립이 시급하다.